

금남로에서

정재현



교육현장이 변화의 몸살을 앓고 있다. 무상급식과 일제고사 폐지, 학생 인권선언, 체벌금지 등 숱한 논란을 둘러싸고 갑론을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정치권과 지자체까지 가세하면서 진보·보수의 이념논쟁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이런 변화는 진보 교육감의 탄생에서 이미 예고됐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16개 시·도 교육감 가운데 6명이 진보성향 교육감이다. 이 가운데 2명은 전교조 출신이다.

변화의 흥역 앓는 교육계

국민은 변화의 흥역을 치르고 있는 교육계를 기대와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민은 더더욱 그렇다. 두 교육감 모두 진보성향인데다, 특히 광주는 전교조와 동고동락(同苦同樂)한 교사 출신이기 때문이다.

3월 교원인사가 기다려진다

들에게 내놓을 첫 작품은 이달 말께 있을 정기교원인사가 될 것이다. 그동안 교원인사는 급품수수, 정실인사 등 교육풍토를 어지럽히는 근본원인이었다. 지역 교육계의 고질병인 과별과 부정부패, 무사안일, 공교육 황폐화 등이 인사에서 비롯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교육감의 인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그리고 특정단체 출신의 인사를 앉히기 위한 조직개편은 곤란하다. 더욱이 공조직을 무력화시키는 위인설관(爲人設官)은 개혁이 아닌 개혁(改惡)이다.

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했다는 얘기가. 세계적인 교육강국이자 '교육 유토피아'로 불리는 핀란드는 교육개혁에만 22년이 걸렸다. 핀란드 교육개혁의 성공은 교육을 국익으로 보고 초당파적인 합의를 이뤄내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교원인사 진보 첫 시험대

과거의 것을 전부 백안시하는 것은 독선이다. 재임기간에 모든 것을 바꾸어 놓겠다는 것 역시 망상이다. 교육은 신중해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념과 계층을 아울러야 하는 이유다.

광주·전남교육감은 교육개혁에 대한 의욕에 넘쳐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조금 해신 실패한다. 개혁을 하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학교 구성원과 지역민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면 개혁의 길은 보인다.

정확히 얘기하면, 교육개혁에 대한 기대가 크다. 천직으로 삼은 교직까지 박탈당하면서도 교육자의 길을 끝까지 지켰던 선생님으로서, 일생을 교육자 양성과 한국교육의 질적 향상에 바친 진보 교육화자로서의 초심을 잃지 않기 바란다.



목영석



옛그제 새해를 맞은 것 같은데 내일이면 보름이다. 예전 같으면 부럼에 귀밝이 술을 준비하며 흥겨워할 때이지만 구제역이 퍼져 나가면서 세시풍속마저 바뀌는 것 같아 안타깝다.

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면 표정이 달라질까? 구제역과 AI의 폐해는 소고기와 닭고기 가격의 인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보름달에 빌어야 할 소원 하나

식육산업이 위축되고 여행업이 직격탄을 맞으니 서비스업 생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사회가 다원화되고 공동체의식이 희미해지면서 사람들은 이기적이 되어간다.

가 유출되고 처리불능 상태에 빠진 가축 분뇨가 버려져 수돗물마저 마시지 못하게 되어야만 남의 일이 아니다 싶은가? 우리는 이미 종사하는 직업이 다르고 주거지역이 떨어져 있더라도 원하던 원치 않던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증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쓰는 코너입니다.

기고

전승현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란 속담이 있다. 이는 주소나 이름도 모르면서 집을 찾는 일을 조롱하여 이르는 말이다. 서울이나 낮은 지역에 갔을 때 목적지를 찾지못해 헤매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겐 아주 익숙한 속담이다.

로 보편화된 주소 제도로, 도로에는 도로명을 붙이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순차적으로 일찍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목적지의 예측이 가능하도록 20m간격으로 기초 번호를 붙여 거리 계산이 가능하는 등 여러 나라의 주소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다.

'도로명 주소'가 지역발전 이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소 하나만으로도 전국 어디나 찾아 갈 수 있고, 택배 및 우편 등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배달되어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 바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이다.

실물 설치와 DB 정비를 완료한 데 이어 새로운 주소체계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 동영상 배부와 초등학교 그림·글짓기대회 등을 개최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해 왔다.

대중교통 기사들 운전중 목설 자체했으면

버스나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차선 바꾸기, 급제동 등 여러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승객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고객이다. 고객에게 친절하기는커녕 운전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로 목설을 퍼부어 대는 것은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에 대한 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다.

차선 바꾸기, 급제동 등 여러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승객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고객이다. 고객에게 친절하기는커녕 운전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로 목설을 퍼부어 대는 것은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에 대한 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다.

시설

울 지역 건설경기 최악 전망, 대책 서둘러야

올해 광주·전남지역 건설경기가 최악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공기관의 지역 내 발주공사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3분의 1 이상이 줄었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이 지역의 큰 공사를 독식해 지역 중견건설업체들마저 줄줄이 부도를 맞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워주는 비상구 역할을 해온 공공 공사마저 급감한다면 실지라기 어렵게 된다.

도의회 '관광성 의무' 해도 너무하지 않나

전남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임시회 회기 중인데도 불구하고, 피감기관 직원들과 함께 관광성 해외연수에 나서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소속 임흥빈(신안 1·민주)·곽영채(강진 1·무소속) 의원 1·민주) 의원 등이 14일부터 8박 9일간의 일정으로 호주·뉴질랜드 연수를 떠났다고 한다.

마땅하다. 연수 일정을 보더라도 야생동물원, 호주국립공원, 시드니 타워·크루즈 탑승을 통한 남태평양 야생동물과 관람, 오페라하우스 및 시드니아쿠리움 방문, 플라네시안 온천 등 대부분 관광으로 채워져 있다.

無等鼓

매년 엄청난 수의 회화작품이 구매자를 찾아 시장으로 흘러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그림이 잘 팔리는지'에 대한 보편적인 평가 또는 원칙이 존재한다. 현대미술품 컬렉터이자 작가와 미술 평론가, 화랑, 경매회사들 간의 관계를 파고든 책 '은밀한 갤러리의 저자'이기도 한 도널드 톰슨(Donald Thompson)에 따르면 초상화의 경우 나이 든 여성이 나 추한 남성보다는 매력적인 젊은 여성 혹은 남자 어린이의 초상화가 더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

다. 과일보다는 꽃 그림이 더 비싸고, 잔잔한 물이 들어간 그림이 거친 물결이 있는 그림보다 더 비싸게 팔린다. 거친 물결에 부서진 배까지 들어가면 값은 더 떨어진다.

Table with 2 columns: 광주시 (Gwangju City) and The Kwangju Alb.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rates.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